

#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 “포디움 오르고파”

2022 국제수영연맹(FINA)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롱코스) 자유형 200m에서 메달권 진입을 바라보는 황선우(19·강원도청)가 1분 44초대를 찍는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선우는 14일 오전 선수촌에서 열린 수영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참석해 “1분44초대에 들어가는 선수가 포디움에 오르고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선우는 17일 개막하는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100m 200m 계영 400, 800m에 나설 예정이다. 이중 가장 메달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자유형 200m다.

국제 경쟁력은 이미 검증된 황선우는 지난해 도쿄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62의 한국 신기록 및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작성했고, 결승까지 올라 최종 7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자신감을 얻은 황선우는 그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에티하드 아레나에서 진행된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25m) 남자 자유형 200m를 제패했다.

황선우가 부다페스트에서 3위 안에 들면 박태환에 이어 세계선수권

박태환 이후 첫 롱코스 세계수영선수권 입상 노려 “자유형 200m, 1분44초대면 입상 가능할 듯”



한국 수영 간판 주자 황선우.

(롱코스 기준) 시상대에 오르는 두 번째 한국 선수(경영 기준)가 된다.

황선우는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을 때 기분을 롱코스에서도 다시 느끼고 싶다. 호주에서 6주간 열심히 훈련했는데 빠짐없이 다 보여주고 싶은 대회로 만들고 싶다”

고 각오를 다졌다.

올 시즌 황선우의 자유형 200m 최고 기록은 지난 3월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찍은 1분45초79다. 당시 세계 1위에 해당하는 황선우의 기록은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경쟁자들이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8위로 밀렸다.

시즌 1위 기록은 케어런 스미스(미국)의 1분45초25. 황선우와 격차가 크지 않다. 황선우의 개인 최고 기록(1분44초62)에는 못미친다.

물론 본부대인 세계선수권에서 기록들이 단축될 공산이 크지만, 1분 44초대에 진입하면 포디움 입성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리는 아니다.

황선우는 “아직 올해 44초대를 낸 선수가 아무도 없다”면서 “자유형 200m는 작년 쇼트코스에서 1등을 했기에 이번엔 꼭 1등은 아니어도 포디움에 올라도 굉장히 만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선우는 “아직 올해 44초대를 낸 선수가 아무도 없다”면서 “자유형 200m는 작년 쇼트코스에서 1등을 했기에 이번엔 꼭 1등은 아니어도 포디움에 올라도 굉장히 만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선우를 포함한 경영 대표팀은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부다페스트로 출국한다. 경영은 18일 시작한다.



세계로 향하는 아티스틱스위밍 한국 아티스틱스위밍이 세계무대에 도전장을 던졌다. 목표는 그동안 같고 뛰어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 아티스틱스위밍 대표팀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출국했다. /뉴시스

## KLPGA투어 2승 박민지 세계랭킹 17위

지난주부터 8계단 상승...고진영 1위 사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쉐르트리온 쉐르트리온 쉐르트리온에서 타이틀을 사수에 성공한 박민지(NH투자증권)가 세계랭킹에서도 재미를 봤다.

박민지는 14일(한국시간) 발표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부터 8계단 상승한 17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19일 랭킹에서 16위까지 치고 나간 바 있는 박민지는 최근 KLPGA 투어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10위권대로 재진입했다. 박민지는 이를 전 끝난 쉐르트리온

## ‘한일전 완패’ 황선홍호 정상빈 등 6명 코로나 확진

한일전 완패로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아컵 8강서 탈락한 황선홍호 선수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귀국이 지연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정상빈(그라스호퍼)과 코치진 1명, 지원스태프 4명 전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격리됐다”며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상민(충남 아산)을 포함하면 총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내 방역 지침에 따라 확진일로부터 열흘이 지나야 귀국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 노선이 주 2회밖에 없어 귀국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취소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형, 보고 싶어요”...소원 이룬 손흥민 축구화 경매 낙찰자

축구화·유니폼 낙찰 받은 두 주인공 손흥민 만난다



손흥민 축구화 낙찰받은 대학생 이재호(왼쪽)씨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토트넘)의 축구화를 경매에서 1600만원에

낙찰 받은 팬이 손흥민을 만나는 소원을 이루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 “2002 한일월드컵 20주년 기념 행사로 연 선수단 소장품 경매에서 손흥민의 축구화와 유니폼을 파격적인 가격에 낙찰 받은 두 주인공이 손흥민을 만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이란과의 2022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손흥민이 결승골을 넣을 때, 착용했던 축구화는 1600만원에 대학생 이재호(24)씨의 품에 안겼다.

앞서 친필 유니폼은 650만원에 김우진(24)가 낙찰 받았다. 손흥민은 자신의 축구화와 유니폼이 큰돈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함을 전하며 협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요청했

다. 협회는 이날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집트와 평가전에서 두 팬을 초청해 경기 전에 선수를 만나 사인부를 전달하고, 사진을 찍는 추억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씨는 “흥민이 형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손흥민은 경매 소식을 듣고 “아무 것도 아닌 걸 비싸게 경매를 통해 사주셔서 감사하다. 말로만 아니라 경매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낙찰 받으신 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협회와 상의해서 따로 더 챙겨드리고 싶다. 너무 큰 돈이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 다시 한번 낙찰된 가격이 비싸지만 축하드리고, 협회와 얘기해서 더 챙겨드리고 싶다”고 했다.

낙찰 금액은 손흥민의 이름으로 천안시에 지어지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비용으로 들어간다.

2022 행복해남!

# 해남형 ESG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가요!

탄소 중립도시 완성  
**청정해남**

환경 Environment

기후변화대응 | 친환경 | 탄소저감

안전망 구축  
**함께해남**

사회 Social

안전망 구축 | 경제활력 제고 | 교육·공동체 육성

공정한 윤리경영  
**청렴해남**

지배구조 Governance

청렴한 공직문화 | 혁신과 참여행정 | 건전재정